

## “빠른공 만으로 승부하던 한기주는 잊어라”

### KIA 마운드 ‘마지막 퍼즐’ 한기주 복귀

### 투구폼 고교시절로 돌아가 변화구 위력



KIA 마운드의 ‘마지막 퍼즐’ 한기주가 돌아왔다.

KIA 마무리 한기주가 22일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지난달 18일 오른 쪽 어깨 통증으로 재활조로 내려간 뒤 한달 여만의 복귀다.

한기주가 돌아오면서 KIA 마운드의 큰 틀이 잡혔다. KIA는 마무리 임무를 맡았던 한기주의 부재 속에 마운드 최상의 조합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아왔다.

한기주는 “부상으로 스프링캠프에서도 한 차례 쉬어갔는데 시즌 시작하자마자 다시 또 부상이 찾아와서 힘들었다. 하지만 완벽한 상태로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했다. 팀 상황이 좋지 않다. 주어진 자리에서 내 임무에 충실해서 팀 승리에 기여하는 게 내 목표다”고 밝혔다.

2군에서 3차례 등판에 나선 한기주는 제구에 초점을 맞춰 1군 합류를 준비했다.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뿌렸던 파워피치의 모습은 아니었다. 2군 등판에서의 최고 구속은 143km, 투심 시합도 병행했다. 파워를 통한 맞대결이 아닌 맞춰잡는 피칭이 한기주가 구상하는 야구다.

한기주는 “입단 후 빠른 볼로 승부를 해왔는데 한계가 왔다고 생각했다. 변화의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스피드가 뒷받침 되어야 변화구 위력이 더해지는 만큼 스피드를 버린 것은 아니다. 아직은 스피드가 100%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경기를 하면서 스피드도 점차 끌어올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변화를 꾀던 투구폼은 완전히 몸에 익었다. 한기주는 상체 위주의 피칭에서 벗어나 하체를 활용하기 위해 스프링캠프 기간 키킹 동작을 바꿨다.

한기주는 “슬럼프에 빠질 때면 고등학교 때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왜 그때처럼 공을 던지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투구폼 변화도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하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밸런스를 잡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다. 왼발을 크게 들리면서 키킹 동작을 했는데 밸런스가 잘 맞았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부상으로 인한 고비를 넘기고 1군에 돌아왔지만 한기주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2의 한기주의 시대를 열기 위해 변화를 선택한 만큼 그 성공 여부에 따라 팀은 물론 한기주의 미래 모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기주는 “확장시절에도 그랬고, 올림픽 그리고 2009년 팀이 우승을 하는 순간에도 나는 항상 조연이었다. 우승은 몇 차례 해봤지만 그때마다 좋은 활약을 하지 못했다. 마음의 부담을 털고 주축 선수로 당당하게 내 몫을 다하고 인정받고 싶다”며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기주

## 선동열 감독 “몸 만들어 선수 등록해?”

### ① 덕아웃 말말말

▲몸 만들어서 선수 등록할까? = 오는 7월20일 한·일프로야구 레전드 매치에서 일본 전설의 마무리 투수 사사키 카즈히로 맞대결을 벌이게 된 선동열 감독, 몸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독 들이지 말아라 = 선동열 감독, 타자들에게 선출한 방향이를 한화 장성호가 휘둘러 보자.

▲저도 한 자루 주십시오 = 방망이에 눈독 들이지 말라는 선 감독의 핀잔을 들은 장성호.

▲공이 없어졌어 = 롯데와의 주말 홈경기에서 우익수로 출전했던 나지완, 문규현의 타석 때 다이빙 캐치를 하면서 공을 잡았는데 어느 순간 공이 사라졌다면서, 몸을 날리는 호수비를 선보였지만 공이 클러브에서

빠지면서 안타가 됐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9번 선수, 너의 임무는 하위타선을 이끄는 것 = 나지완이 22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9번 타자로 출전한 85 등갑내기 친구 김주영을 보고.

▲더워서요 = 22일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난 이용규, 머리를 자른 이유를 물어보자.

▲그때는 시는 게 아니었죠 = 팀이 연패에 빠져 마음이 좋지 않다는 김원섭, 지난해 16연패 할 때 심정을 묻자.

▲도루 하나 했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 헬스트립 부상으로 뒤늦게 팀에 합류한 이범호, 몸은 괜찮냐는 질문을 받자, 이범호는 20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무관심 도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풍운아’ 최향남 KIA 돌아올까

### 마운드 입단 테스트

‘풍운아’ 최향남이 친정 마운드를 다시 밟을 수 있을까? 투수 최향남이 KIA 유니폼을 입을 전망이다.

최향남은 지난 21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을 찾자 KIA 선동열 감독이 지켜보는 앞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았다.

최향남의 피칭을 지켜본 선동열 감독은 22일 한화와의 경기에 앞서 “스피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공이 괜찮아보여서 팀에 계약 하라고 했다. 정리할 것들도 있다고 하고 입단 문제가 마무리 되면 다음주부터 2군에 합류해 공을 던질 것이다”고 말했다.

입단이 최종 결정되면 최향남은 같은 팀 유니폼을 세 번째 입게 된다.

목포 영흥고 출신인 최향남은 해태 시절인 1990년 프로에 데뷔한 뒤 LG에서 6시즌을 뛰었고, 2004년 친정으로 돌아왔다.

이후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최향



2009년 당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했던 최향남.

남은 롯데 그리고 일본 독립리그를 거쳐 지난 2011년 롯데에 재입단했다. 하지만 팔꿈치 부상 여파로 지난 시즌 중반 롯데에서 방출되면서 무적 상태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FC “FA컵 승리로 분위기 반전”

## 홍명보호 ‘원톱’에 김동섭

### 오늘 충주 협멸과 32강전

광주 FC가 FA컵 승리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광주는 23일 오후 7시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충주 협멸을 상대로 ‘2012 하나은행 FA컵’ 32강 경기를 치른다. 정규리그 9경기 연속 무승에 빠진 광주는 승리에 목말랐다.

FA컵 승리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겠다는 광주는 이번 경기를 위해 베스트 11을 총가동시킨다.

승강제 도입으로 K리그 싸움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침체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최만희 감독은 ‘승리’를 선택했다. 광주는 또 이번 경기에서 새로운 수비 조합을 가동해 K리그 순위싸움에 대

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가 만나야 하는 충주는 내셔널리그에서 4승2무5패로 9위에 올라 있다. 3-4-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역습에 강하다.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팀내 4골을 기록하고 있는 이해정과 민병준이 경계 대상.

충주는 공격진과 미드필드에서 180cm가 넘는 선수가 없는 만큼 장신 장수는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고공축구의 위력을 뽐낼 계획이다.

평균신장이 190cm가 넘는 복이, 김동섭, 박기동, 이용, 유종현, 임하람, 이한샘 등이 전후방에서 압박을 가할 예정이다. 중앙에서는 발 빠른 이승기, 김은선, 김수봉 등이 공수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서울과의 정규리그 13라운드에서 프로 데뷔골을 넣은 수비수 이한샘은 “득점도 했지만 실점의 원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수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충주와의 경기에서는 철벽수비로 무실점 경기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FA컵은 축구협회 주최로 열리며 프로와 아마추어 축구팀이 모두 출전해 우승컵을 다툰다.

32강전에는 2라운드를 통과한 7개 팀과 내셔널리그 상위 9개 팀, K리그 16개 팀이 참가한다. 우승팀은 상금 2억 원과 함께 내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얻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시리아전 공격수 승선

광주 FC 공격수 김동섭이 시리아 격파를 위해 출격한다.

광주 김동섭이 22일 시리아와의 올림픽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 나설 19명의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동섭은 지난 3월 카타르전에서 이어 다시 홍명보호 감독의 부름을 받으며 오는 6월7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리는 시리아 올림픽대표팀과의 친선경기에 나설 기회를 얻었다.

최전방 원톱 공격수로서 시험을 받았던 김동섭은 자신의 특이인 스피드와 개인기를 이용해 런던으로 가기 위한 눈도장을 찍겠다는 각오다.

김동섭은 “올림픽 본선에 앞서 평가받는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해 공

격수로서 확실한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몸 상태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유지만 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림픽대표팀 카타르전 소집 명단(22명)

GK : 김승규(울산), 이범영(부산) DF : 김기희(대구), 장현수(도쿄), 임종은(성남), 오재석(강원), 정동호(황주), 홍철(성남), 윤석영(전남)

MF : 박종우, 이종원(이상 부산), 이명주(포항), 윤빛가람(성남), 서정진(수원), 문상윤(인천), 김태환(서울), 윤일복(경남)

FW : 김동섭(광주), 김현성(서울)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임흥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국립공원 16좌 고객원정대」모집



-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 ▶첫번째 산행: 5월 25일(금) 당일 / 계룡산
-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최 | MILLET | 주관 | Mtour  
후원 | 63 광주일보사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7월~8월**

예약문의\_ 062 - 221 - 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